대학생도 시민도…그리웠다, 캠퍼스의 낭만

전남대 '용봉대동풀이' 3년만의 개최…주점·공연장 등 북적

"사람들과 함께 해 행복하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축제를 대표하는 전남대 '용봉대동풀이'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2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첫날인 21일, 축제의 주 무대인 전남대 5·18 잔디광장에는 밤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다. 전남대 측은 이날 용봉관 뒤쪽에 마련된 야외 공연장에만 3000여명의 사람이 몰렸다고 밝혔다.

대학 곳곳에 마련된 주점은 모두 만석이었다.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마스크를 벗은채 술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코로나19 이전 대학생들의 모습과 같았다. 다만 코로나19로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적어서인지, 신입생이 모인 테이블에서는 술게임이 1분 이상 이어지질 않았다. 그래도 학생들은 리듬에 맞춰 "민영이가 좋아하는 랜덤게임, 랜덤게임"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서로 등을 두드리며 웃는 소리가 전남대 곳곳에 퍼졌다.

이날 축제의 주인공은 의외로 초등학생들이었다. 저녁 내내 5·18 잔디광장에 설치된 야외 공연장 앞을 지키던 초등학교 1~3학년 4명을 사회자가 무대로 초청했다. 학생들이 수줍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씩 할 때마다 광장에선 여성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무대에서 가수 아이브의 '러브다이브' 노래가 나오자, 초등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얼굴을 받치며 도도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야외공연장에 모인 학생, 주민, 카메라 감독, 안전 요원 모두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무대에 오른 초등학생 중 청일점이었던 배선우(7)군은 공연장을 나서며 아쉬운 듯이 자꾸만 뒤를 돌아봤다. 배군은 "또 무대에 오르고 싶다"며 아버지 배세진(43)씨의 소매를 잡아끌었다. 배 군은 평소에도 '틱톡' 앱을 활용해 친구들과 춤을 추며 논다고 했다. 오늘은 안된다는 아버지의 말에 배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내일 또 오자"고 말하는 그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배씨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오늘 전남대 축제를 한다길래 아이와 아이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다. 사람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모습이 그리웠다"고 말했다. 배씨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그동안 필요했다.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가는 것 같아 좋다"며 아이들과 함께 웃었다.

이날 공연 마지막 순서는 전남대 락밴드 '맥킨토쉬'의 공연이었다.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정재윤(22)씨는 '코로나 학번'이다. 대학 3학년이지만 대학 축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연을 앞둔 정씨는 "이제야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되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떨림이 흥분으로 바뀐다"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웠다. 야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밀집해있었던 만큼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 축제가 진행됐다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날 축제는 3년 전 여느 대학 축제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전남대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광장에서 축제를 즐기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남대학교 축제 '용봉대동풀이'가 열린 21일 밤 5·18잔디광장을 찾은 학생과 주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전남대 교직원 범죄 건수 '국립대 1위' 불명예

6년간 음주운전 등 111건

전남대 교직원들이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8개 4년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39건의 교직원 범죄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

학교별로는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50건, 7.8%), 충남대(34건, 5.3%), 안동대(34건, 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음주운전이 116건에 달했다. 그 뒤를 단순 직무 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성범죄 42건(6.6%), 명예훼손·모욕 19건(3.0%), 금품수수·부정 청탁 15건(2.3%) 순이었다.

성범죄의 경우 28개교 중 23개교(82.1%)에서 발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벌에 따른 교내 조치 현황이 파악되는 500건 중에서는 경징계가 201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 없이 내부 종결된 사례는 184건(36.8%)이었다. 중징계는 95건(19.0%)이었다.

전남대는 이와 관련 "혐의없음, 각하, 수사 계류 중인 사안까지 참고삼아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는데, 모두 범죄행위로 통계에 포함됐다"며 "이들 사안을 제외한 범죄행위는 48건이다"고 해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학생들, 별 일 없나요?

5년간 극단적 선택 초중고생 급증…7일 이상 무단결석도 증가 추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초·중·고교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7일 이상 장기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 또한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 남구·울릉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불화, 우울증, 성적비관, 성폭력 피해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은 총 630명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는 가정문제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업진로 문제 116건, 정신과적 문제 94건, 대인관계 문제 88건 순이었다.

이 중 광주와 전남은 각각 26명과 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광주와 전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1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더해 최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장기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 수가 다시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7일 이상 장기 무단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생들의 무단결석이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해외출국,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장기 무단결석을 한 학생은 전국에 1만9043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만353명, 1만3109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92명의 학생들이 장기 무단결석을 하며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광주와 전남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2019년 장기 무단결석을 한 학생은 1052명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56명, 672명으로 감소하는 듯 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562명이 장기 무단결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학교 안과 밖의 경계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北 피살 공무원 영결식' 목포서 2년만에 엄수

2년 전 연평도 인근 서해상을 표류하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2일 목포시 효사랑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친지, 조승환 해수부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국민의힘 하태경·안병길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은 지난 2020년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북측은 표류 중이던 A씨에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 살해됐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 등은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고, 직권면직 처분했던 해수부도 올해 7월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바꿨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여수산단 화학물질 유출 수십명 병원행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석유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작업자 수십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유출된 물질이 극인화성 물질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여수산단에 있는 금호석유화학(주) 여수고무 제2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면서 가스가 발생해 근처에서 배관 증설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49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사이클로헥산'(85%)과 'TLA'(15%)의 액체 상태 혼합물로 '위험물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에 속한다. 특히 사이클로헥산은 조그마한 스파크에도 불이 붙는 인화성 물질이다.

여수시는 금호석유화학 공장의 배관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아 누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안전장치인 배관의 끝에 있는 안전캡이 제대로 씌여있지 않았던 점도 누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유출량은 5~10ℓ 정도로 추정되며, 배관 틈 사이로 조금씩 흘러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 이후 해당 공장의 모든 작업이 중지됐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